

오늘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시편145:18)

통 권 _ 제 200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7년 1월 21일

함즐함울

www.pcltv.org

〈사진설명〉조선 최초의 여의사가 된 김정동의 삶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뮤지컬 '조선의 빛'



나의신앙이야기_송용미	2면
봉사사역본부 모임	2면
심장병 어린이 돕기	3면
장학금 신청 안내	4면

로렘나무

기도의 사람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겔 9:4)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테두리에서만 하려고 한다. 기도도 예외는 아니다. 거창한 기도 제목은 부담이 된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현실을 보면서 느끼는 안타까움이나 분노를 내 스스로 잠재울 때가 많다. 나의 작은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런 내 안에는 행동하지 않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나를 돌아보게 한다. 그래서 나는 꺾꺾 눌러놓았던 마음의 보따리를 풀었다. 한 쪽 귀퉁이에 버려졌던 기도의 제목들을 내 곁으로 끌어 당겼다. 그것들이야말로 올 해 내 기도 속에 넣어야 할 필수품목이 아닐 수 없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렘29:7)

주님! 적극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올 한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혜숙 집사

수요예배-“보다 친밀한 예배공동체를 경험한다.”

수요일 저녁 7시 20분 주님의교회 중예배실에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지난 주일과 다가올 주일의 중심에 있는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의 찬양이다.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하는 성도들의 어깨는 아름다운 음율과 가사에 따라 좌우로 움직인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도 있다. 찬양의 가사를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또한 찬양의 사이사이에 들려지는 기도는 열정적이다. 수요일 저녁은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힘을 다해 기도하는 특별한 시간이다. 성도들의 열정적인 기도가 마무리되면 설교자가 말씀을 전한다.

말씀은 교역자들이 순서를 맡아 전하고 있다. 수요일 설교의 특징은 주일설교가 가지지 못하는 세밀함에 있다. 보다 가까운 회중과의 의사소통,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와 넉넉한 시간이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 수요예배 설교를 통해 주님의교회 부교역자들에게 각기 다르게 주신 목회철학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신화식목사가 누가복음5장 36~39절의 본문으로 “묵은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된다.

2007년도는 수요예배의 부흥을 기대해보고 싶다.

단지 수적인 부흥이 아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보다 친밀한 예배공동체의 경험을 갈망한다. 주일에 집중적으로 참여하는 5,000여명의 성도가 모두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요예배는 신앙 성숙의 계기는 물론, 보다 가까운 성도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정애 기자〉

의료선교부 외국인비전센터 진료

의료선교부에서는 금년부터 매월 둘째 주에 외국인 비전센터(경기도 하남)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몽골 등지에서 이주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 진료를 하기로 했다. 지난주(1월 14일) 오후 2시에 하남센터에서 의료선교부원들을 포함한 20여명의 성도들과 하남센터의 직원, 그리고 진료를 기다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함께 모여 감사 예배를 드렸다. 의료 선교부 총무 최석주 집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정희성 목사는 말씀을 전했고 선교위원장 한윤경 장로의 격려말씀에 이어 의료선교부장 김학원 집사가 인사와 경과보고를 했다.

(4면에 계속)

30CUP 예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고백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 대예배실
말씀: 김현령 목사

※요람 사진촬영※

2007 교회요람 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이 오늘 마지막으로 진행됩니다. 성도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예배의 현장/ 수요일예배

지난 10일 수요일예배에서는 우동윤 목사가 창세기 1장 24절~31절 ‘늘 처음처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우목사는 ‘기독교 가치관이 생명윤리 및 자연친화적인 관점을 포함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며 말씀을 시작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즉 ‘하나님의 인격성’이 사람에게 부여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것이라 여겨진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 받았다는 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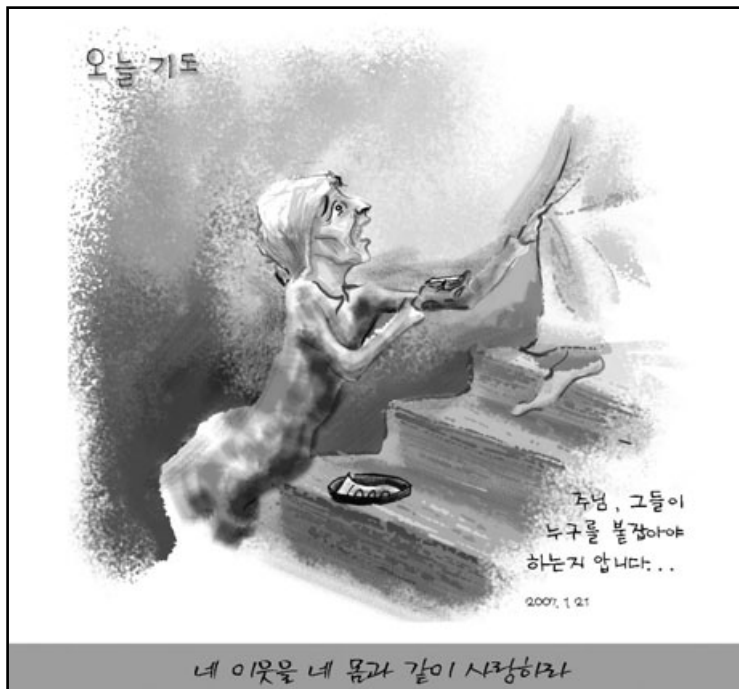
이는 경직된 ‘인간중심적인 사고관’을 낳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흠’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흠’으로 빛어진 존재이다. 흠-인간-하나님의 삼각관계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는 주변 창조질서가 무너지면 인간도 무너지는 관계임을 의미한다. 인간이 자연환경을 오로지 소유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환경은 파괴되었고 인간도 그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인간중심적인 사고관’과 함께 우리가 일시적으로 몸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의 땅, 즉 천국과 분리하여 사고하는 ‘이원론적인 신앙’도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파괴하는데 일조하였다.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최초로 하나님-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렸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사야서 11장 6절을 보면 사막에서 새이 나고, 어린 사자들과 어린 양들이 뛰어 노는 천국의 모습이 묘사된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십자가의 피로 만물이 화평을 이룬다고 전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신 후에도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한다.

우동윤 목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다른 피조물과 나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 나와 관계’ 속에 반영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 고백했던 사도바울처럼 현재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점검해야 할 때라고 우목사는 강조했다. 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처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순응하며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사라 기자>



봉사 사역 본부 부서장 모임

지난 1월 14일 주일 오후 5시에 양평에 소재한 “닥터 박 갤러리”에서 담당 교역자들과 봉사 사역 본부장 및 본부위원 그리고 부서장 부부들이 상견례 모임을 가졌다.

수려한 경관과 멋진 갤러리의 그림 같은 모습은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정취를 맛보게 하였다. 저녁식사 후 갤러리 직원의 친절할 설명을 들으며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등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소극장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모여 봉사 사역 본부장인 박호길 장로의 격려사와 담당 교역자 및 본부위원 소개가 있는 후 부서장 부부들이 함께 일어나 올해 주어진 봉사 사역을 부부가 합심하여 잘 감당할 것을 다짐 하고 이어서 오페라 감상 시간을 끝으로 모임을 마쳤다. <김기용 홍보출판부장>

<1면 사진기자> 청년부 뮤지컬 ‘조선의 빛-조선 최초의 여의사 김점동’

예수전도단 ‘임팩트’가 주최한 창작 뮤지컬 ‘조선의 빛-조선 최초의 여의사 김점동’이 지난 주일 저녁7시에 중예배실에서 공연되었다.

‘조선의 빛’은 뮤지컬 ‘양화진’ 시리즈 중의 세 번째 이야기로 의료선교사 제임스와 로제타 홀 선교사부부, 이화여대의 설립자 스크랜튼 선교사, 이들의 도움으로

조선최초의 여의사가 된 김점동(박에스디)의 삶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뮤지컬이다.

100년 전 가난과 전염병과 부패한 관리들의 착취로 시달리는 조선 땅에서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신의 소망을 키워나가는 김점동은 시대의 요구에 굴하지 않고, 여의사가 되는 꿈을 이루어 그의 짧

은 삶-김점동은 34세에 폐결핵으로 사망했다-을 온전히 환자를 돌보는 일에 바친다.

뮤지컬을 관람하기 위해 다른 지역 교회의 청년부와 초등부등도 참석했기 때문에 가득찬 관객석은 감동의 눈물과 박수소리와 웃음소리들이 이어졌다.

잠실중앙교회의 청년부로 있는 박종길 형제는 이 뮤지컬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

았는데, 특히 김점동을 시집보내려고 하는 장면에서 당시 사회적 관습을 뚫고, 자신의 일을 하기 위해 신념을 밀고나가는 그녀의 열정이 감동적으로 다가왔다고 했다.

주님의 교회청년부 동윤제자매는 의료선교사인 로제타여사와 김점동이 여의사가 되기로 장래를 결정하는 장면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허진기자>

나/의/신/앙/이/야기

나를 부르심, 중보기도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며 그 말씀을 이루어주실 것이며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기도 생활을 한다. 내 자신이 중보기도에 참여 하며 많은 것을 경험했다.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는 부르심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가 웬지 그냥 읽어 드리기만 하는 것 같아 마음에 부담도 있었다. 그러나 때때로 나도 모르게 눈물도 흐르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배워가는 경험을 하곤 했다.

중보기도가운데 암환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부끄럽게도 나오는 멀리 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죄를 죄로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문둥병환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내 자신 얼마나 놀랐는지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죄를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 기도실에 들어가면 기도 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시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올해는 가족 중에 위암 수술을 하게 되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드리지 않았음을 알게 하셔서 회개하는 은혜를 누렸다.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도 알았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운데서 지내며 힘든 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경험한 것은 중보기도의 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보기도사역팀은 동역자들이 팀별로 만나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또 특별한 일이 생길 때는 전화나 문자로 기도를 요청하여 함께 주님 안에서 만나는 귀한 공동체이다. 중보기도 전체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끼며 좀 더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자로 사역하면서 기도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희망한다. 우리중보 기도 팀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만나는 귀한 공동체다. 많은 교우들이 중보기도 사역자 모임에서 함께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송용미 집사, 48)

파울

사도 바울

이름의 뜻: 작은 자, 본명은 사울(Saul)
출생지: 길리기아 다스
(로마 시민권을 소유함)
혈 통: 베냐민 지파 출신
직업: 복음 전도자, 장막업자
(Tent-maker)



바울의 회심: 박해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기까지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대가정에 태어나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 문하에서 율법을 배운 정통 유대인으로(빌 3:5)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만큼 엄격한 생활을 했다.(빌 3:6)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율법과 성전에 대한 가르침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다.(빌 3:6; 행 7:54-9:2) 흠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극적으로 회심하여(행 9:3-18) 복음전도자의 길을 일평생 걷게 된다.(행 9:19-22)

바울의 사역: 복음 전도자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여행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바나바의 추천으로 제자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했다(행 9:26-29).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가르쳤으며(행 11:25-26) 그와 함께 1차 전도여행(행 13:4-14:28)을 떠났다. 2차 전도여행(행 15:40-18:22) 때는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다툰 후 그와 헤어지고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행 15:36-41) 루스드라에서는 디모테를 만나(행 16:10-4) 함께 전도사역을 하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고린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했다.(행 16:9-11) 그는 3차 전도여행(행 18:23-21:14)을 통해 2차 전도여행지를 재방문하여 교회들을 돌아보았다. 그때 3년 간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행 19:8-9)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라는 만류를 듣고도(행 21:4-13)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국 로마로 이송되어 로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대머리에 작은 키로 외모가 불품이 없었으며, 말할 때 언어장애로

인해 어눌했고 간질병을 앓았으며 성격이 매우 고집스러웠다고 한다. 또한 그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다.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으며, 죄인 중의 죄수”이다. 이 표현은 단지 겸손함의 표현만은 아니다. 실제로 바울은 인간적 허물과 약함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바울의 생애와 사역을 볼 때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을 바울 되게 만드신 하나님, 바울의 약함을 능히 덮으시고도 남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다. 3차에 걸친 전도여행 동안 여러 가지 험한 고난과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도 바울이 이러한 헌신을 이룬 것은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이러한 헌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 바울의 향복을 받아내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때문이다(고 후 11:23-33). 바울의 생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요, 은혜의 사건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바울이 헌신을 이룬 것은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이러한 헌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 바울의 향복을 받아내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구제사역팀 심장병 어린이 돕기 “생명을 살려 내시는 역사의 현장 직접 경험”



《심장소식》 2006년 겨울호 지면

주님의교회 구제사역팀이 진행하고 있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 사업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 중에 생활이 어려워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 어린이를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린이는 심장재단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우리 교회에서 수술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1인당 1,500,000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수술 및 치료비가 지원 예산을 초과하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심장재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004년 추석 무렵 성백숙 장로님과 상의 끝에 심장재단과 협력하여 시작한 일이 하나에 하나를 더하다 보니 열여덟 번째 어린이가 얼마 전 건강하게 수술을 마쳤다는 연락이 와서 문병을 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마친 한 명 한 명을 문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의 생명을 살려 내시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올해도 6명을 결연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사제공: 문완홍 안수집사)
[한국심장재단 소식지-윤진아 자유기고가]

사랑의 후원자 주님의교회
“원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법인데, 뜻 깊은 활동이 더

널리 퍼져나가라는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인터뷰라는 거 한 번 해 보겠습니다(웃음).”

동호(2006년 1월 26일생)의 2차 수술 경과를 보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들렀다가 취재에 응해준 주님의교회 신화식 목사는 몹시 겸연쩍어 하면서도 명료하게 입을 열었다.

주님의교회는 2004년 10월부터 한국심장재단과 인연을 맺고, 최근 17번째 환자의 수술 지원까지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술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수술 후엔 꼭 병원에 들러 환자의 차도를 살피고 축복기도도 드린다. 물론 환자 가족이 수용하는 한도 내에서다.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형편이 힘든 가족이 대부분이기에, 아기 우유 값과 치료비에 보태라고 추가 후원금도 슬그머니 놓고 나온다. 병원을 찾을 때마다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박순희 집사는 “그간의 마음고생 때문인지 부모님을 얼굴에 그들이 많이 보여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 건강 걱정에, 당장의 경제적 짐까지 참 힘든 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사실 수 있도록 미력

하나마 힘이 됐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라고 말했다...오늘의 축복기도에는 동호의 예쁜 혈관이 더 예쁘게 잘 벌어지며 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동호의 웃음이 동호의 엄마 아빠에게, 그리고 주님의교회 세 사람에게 기분 좋게 전달된 것처럼 이들이 나눈 사랑과 희망도 온 누리에 퍼지고 있는 것 같았다.



〈영화상영〉
오늘 오후 3시 30분 1층 유년부실

(1면에 이어서) 나그네를 부모처럼, 형제처럼...

예배 후 시작된 진료는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한방, 치과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약무, 간호 그리고 지원팀 등이 참여했다.

앞으로 진료는 매월 둘째 주 오후 2시부터 시작하며, 치과는 매달 넷째 주에 한 번 더 진료하기로 했다. 많은 경비를 들여 해외에

나가 선교를 하는 일도 귀한 일이지만,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에게 부모처럼, 형제처럼, 다가가 위로하고 복음을 소개하는 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의료선교팀은 앞으로는 진료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사제공:의료선교팀>

문의: 김학원 안수집사(011-9769-6937) 최석주 집사(011-432-2222)

30CUP특강 :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경제 질서”



지난 주일 오후, 제3집회실에서 공정 거래위원장 권오승 장로의 간증이 있었다. 생명력 없는 자신의 신앙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가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시간이었다. 그에게는 신앙에 관한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공짜로 주신다는 은혜, 하나님의 소명 등이 모든 것이 의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연

약할 때부터 사랑하였고 자신이 인식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자신을 이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연약한 인간은 나태해지고 교만해지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믿음을 회복 시켜주신다는 것이다.

간증의 후반부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감도 덧붙였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경제 질서가 확립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더 나아가 온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신 한 번 약속했다.

<신형섭기자>

※바로잡습니다※

지난 199호 3면 전도사 취임기사 내용중 초등부 최락 전도사와 소년부 신상욱 전도사의 사진이 바뀌어 이에 바로 잡습니다.

Misson 한글맞춤,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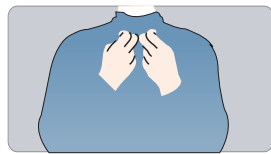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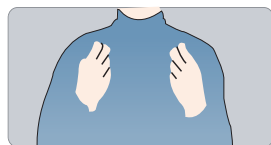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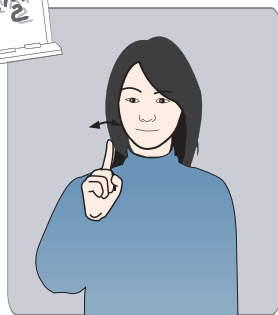


순가락은 ‘ㄷ’ 받침인데 젓가락은 왜 ‘ㅅ’ 받침일까요?

순가락은 ‘밥 한 술, 두 술...’ 할 때 ‘술’과 ‘가락’을 합해서 만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을 합치면 ‘술가락’이 됩니다. ‘가락’보다는 ‘술’이 중요한데 ‘술’소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강조하려고 강하게 발음하다보니 ‘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젓가락은 한자어 ‘저(箸)’[‘밥상에 수저를 놓았다’에서 ‘저’]와 우리말 ‘가락’을 합해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을 합하면 ‘저가락’이 되는데 우리글은 소리글자이기 때문에 글자와 소리가 일치해야 하는데도 [저가락]으로 발음되어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와 ‘가락’ 사이에 ‘시옷’을 넣었습니다. 이를 ‘사이시옷’이라고 하는데 ‘사이시옷’은 뒤에 오는 소리를 된소리로 만들어줍니다.

<이정애 기자>



어떻게(how)란 뜻이에요

‘무엇’이란 뜻에 ‘방법’이란 뜻으로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구부려 한두번 누르면 어떻게 라는 뜻입니다

알려드립니다

길가에교회 피아노기증 요청

주님의교회가 처음으로 번식한 길가에교회까지 날로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의 어린이들이 모이는 교회학교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작년 말부터 부서를 돌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열악

한 재정 사정으로 인해 피아노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새피아노 혹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양질의 중고피아노를 기증해 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길가에교회
031-552-2273
한득현장로
016-249-7668



주차안내부 모집



주차안내부에서는 주차봉사에 사역하실 남자, 여자 교우님 구별 없이 모집 합니다. 많은 차량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주차하고 원활히 입출차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봉사 인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큰 보람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입니다. 주차안내부는 매 주일 아침 8시 40분 지하주차장에서 있는 차량부실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회를 가지고 주차안내에 들어갑니다.

※문의: 배익환 집사 011-211-5370, 이재덕 집사 010-6346-3551

2007 어와나클럽 모집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3-5시 장소: 3층 소년부실
대상: 불테(7-9세), T&T(10-13세) 접수: 주일(1층 로비) 평일(사무실)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입단인 된 친구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합니다.

4부예배 찬양대원 모집

세례교인으로 4부예배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문의: 이성규 집사 010-5503-5512

30CUP 모집



30CUP은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청장년층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매주 일 말씀으로 양육 받고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하는 청장년

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30컵예배 매주일 오후 1시 15분 제3집회실

셀모임 매주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교회부속실

30컵찬양예배 매월 셋째 주 오후 3시 30분 대예배실

※문의: 이강우 총무 010-9016-0651

2007 대내외장학금 신청

주님의교회 장학금은 교우들의 소중한 헌금으로 조성되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학업에 정진 할 수 있도록 돕고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에 따라 서류를 작성, 준비해 주셔서 마감일 이전에 꼭 제출해 주십시오. 마감일이 지나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 • 장학금추천서 • 보호자의 재산세 과세 증명서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 입학 통지서 • 성적증명서 • 담임선생님 추천서(고교생에 한함) • 주민등록 등본 • 제출서류확인표

• 양식은 1층 교회사무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장소: 1층 교회사무실(02-416-5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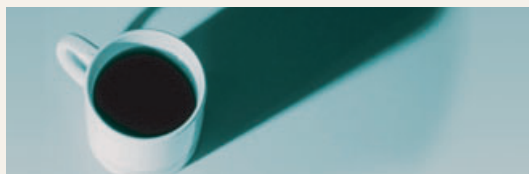
(133-220)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내 주님의교회

신청마감: 재학생 2007년 1월 28일까지

입학생 2007년 2월 4일까지

※문의: 윤의탁안수집사 018-315-9101

봉사부원모집



봉사부사역은 주일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따뜻한 차를 드실 수 있도록 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많은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역시간은 아래와 같이 운영되고 있으며 편한 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부 오전 7:00-8:30 2부 오전 8:50-10:30

3부 오전 10:50-12:30 4부 오후 1:00-2:30

※문의: 강진식 안수집사 011-9728-6579